



담양군이 지난 1일 담양문화회관에서 민선8기 2주년 성과 보고회를 열었다.

담양군 제공

향촌 복지 매진 부자농촌 담양 일군다

민선8기 2주년 이병노 담양군수 부자농촌 이룩 농업예산 확대 127억원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명품딸기 육성 농업분야 성과 등 군민 체감 효도행정 실현 노력

담양군이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군민 초청 성과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군정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담양군은 지속적인 농업예산 확충으로 부자농촌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왔다. 군은 음식특화농공단지,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군민 체감형 행정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일 담양문화회관에서 군민 7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보고에 앞서 “그동안 이룩한 성과는 항상 열정적인 관심으로 함께해 준 군민과 900여 공직자가 함께 이룬 것”이라고 감사를 전하며 군민만 바라보고 씁 없이 달려온 민선 8기 2년의 성과를 설명하고 남은 2년의 담양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부자농촌 실현을 위해 농업예산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127억 원을 투자하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공모 선정과 담양 명품딸기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농업 분야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더 촘촘한 담양형 향촌복지 정착을 위해 통합돌봄 실무추진단을 구성, 거동불편자 병원동행 서비스와 퇴원환자 돌봄 사업 등 군민이 체감하는 효도행정을 실천해 왔다고 강조했으며 담양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음식 특화 농공단



이병노 담양군수.

지와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50억 원 규모의 무정 불안지구와 담양읍 삼만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고서보존지구와 대덕 매산지구 등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군수는 이러한 성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열악한 재정 자립도 등 담양의 당면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적자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공공 시설물 운영 현황 등을 설명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직자와 군민 모두의 주인의식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약점을 보완하고 발전 잠재력을 강화해 2040년 6만2000 명이 거주하는 ‘군민의 삶이 행복한 지속가

능한 자립형 생태문화 경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병노 군수는 “민선 8기 2년간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것은 계속하고 미흡한 것은 채우며,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면서 군민 행복을 위해 씁 없이 달려왔다”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마음을 담아 더 큰 담양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군수는 성과보고회에 앞서 지난달 28일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 홍수조절지(1~3조절지)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이 군수는 홍수조절지 활성화를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을 함께 걸으며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담양 지역 쌀, 브라질 수출길 오른다

운수대통쌀 5톤 선적해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달 27일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브라질 상파울루 최대 한인 마트인 ‘오뚜기마트’와 계약, 현지 판매전용 브랜드인 운수대통쌀 5톤을 선적했다고 2일 밝혔다. 브라질은 연간 1100만 톤의 쌀을 생산하는 남미 최대 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지만 이번에 수출된 담양 쌀은 한국인과 일본인 및 한국 음식(K-푸드)에 관심 있는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을 목표로 판매될 예정이다. 담양 쌀은 과거 대한민국 명품 쌀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2024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연속 2년 대상(14년 연속 대상 8회, 최우수 5회, 우수 1회)을 받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쌀이다. 이병노 군수는 “앞으로도 잘사는 부자농촌 실현을 위해 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특산물의 수출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담양에코센터, 추억의 우표 기획전시

생태 환경 작품 소개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담양 에코센터에서 담양 우표박물관과 협업해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생태와 함께하는 추억의 우표 전시회’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SNS·이메일 사용으로 잊혀 가는 우표를 추억하고 생태·환경을 담은 우표를 소개하고자 기획됐다. 기획전에서는 우표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표 42점(800여장)을 전시하며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 해양보호생



물, 야생화 등 관련 우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번 기획전시 기간 현장에서 동식물 관련 엽서와 우표를 제공해 직접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으로 조그만 사각 틀에 주제를 함축해 사람의 마음을 전하고, 역사, 문화, 사회를 알리는 우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체험도 하고, 자연 환경 보호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 우표박물관(관장 이진하)은 지난 2015년 담양군 대전전에 문을 연 민간 최초의 우표 전문 박물관이다. 국내 최초 우표부터 현대 우표, 세계 우표 등 10만여 점의 우표가 소장돼 있으며 시대순으로 정리된 국내·외 우표와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기념우표들이 전시돼 있다. 담양=신재현 기자

담양군, 자활근로자 대상 심폐소생술 안전 교육

담양군이 지난달 27일 담양지역자활센터 내 교육장에서 관내 의료수급자인 자활근로자 52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안전교육을 추진했다. 2일 담양군에 따르면 의료급여 특화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구성했으며, 담양소방서에서 교육을 맡아 진행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생활 속 응급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

속하게 대처, 1분 1초가 중요한 심정지 상황에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안전의식 함양과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급여 특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담양=신재현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